종이접기 프로그램

영광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전문 강사와의 연계를 통해 매주 목요일 오전 종이접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의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종이의 질감, 모서리, 접힘 등을 손끝으로 느끼며 자연스럽게 촉각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다양한 형태를 접는 과정을 통해 물체의 구조와 공간에 대한 감각도 더욱 섬세해집니다. 또한, 손가락을 정밀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촉각이 예민한 시각장애인의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어, 점자 읽기, 글쓰기, 도구 사용 등 실생활 능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작품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이용자 간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 활동사진







The images used in the template are example images. Replace the images to suit your topic.